

주한미군 고위장성 초청 오찬-인사말

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고위 장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멀리 이국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.

특히 라포트 사령관은 지금 4년째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훌륭하게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고,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. 방금 라포트 사령관이 커블러 중령의 유품을 전해주셨듯이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군인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뼈를 묻은 땅이라는데 대한 그런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

한국의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모두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서 있습니다.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.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대통령이

되고 난 뒤에 한미 동맹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를 감당하는 동안에 아마 양국의 군 지휘부 모두가 매우 힘든 과정을 잘 겪어내 주었습니다. 변화를 잘 관리해 냈지만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.

제가 어려운 일을 만든 것 아닌가 싶어 꼼꼼이 생각을 해 보았지만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제기한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대체로 그동안에 마무리가 다 된 일들은 미국에 제기한 일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. 그러나 어떠한 미국이 제기한 것이든 또는 우리 한국이 제기한 것이든 마무리 될 일은 신속하게 잘 마무리 됐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. 다소 의견이 달라서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약간씩 불만이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은 견해가 일치하고 같고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은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.

모두가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느낌이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. 오늘은 또 그와 같은 느낌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저는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합니다.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양국 장성 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는 자리이면서 또 아울러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